

# 소통 공간으로...노후 도서관 5곳 재구성

광주시 도서관발전 시행 계획 장애인 책 배달 서비스 등 16개 과제·160여 프로그램

서관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4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통해 도서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광주지역 23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도서관 2관과 작은도서관 3관 등 노후 도서관 5곳의 공간을 재구성해 쾌적한 커뮤니티공간과 독서환경을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3년까지 추가 건립에 들어간 공공도서관 5곳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해마다 구입하는 도서 12만여 권을 포함, 매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한다.

시민들의 인문, 문화, 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740여 개와 독서토론 공간 제공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 160여 개도 운영한다. 장애인 등 정보 이용에 불리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유형별 대체 자료를 확충하고 독서보조기기 구입, 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개발·운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무료로 책을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에는 광주 23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한다. 다문화사회 상호 문화이해를 확대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자료실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문화 독서프로그램을 매년 26개 운영한다. 시민들의 자료 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임서비스와 전국 대학도서관 149곳, 공공도서관 897곳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책바다서비스를 광주 23개 도서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명재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서관발전종합 시행계획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개인과 공동체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 교육생 모집

## 광주도시철도공사 '메트로 실버도우미' 264명 배치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오는 11일부터 264명의 실버 도우미들을 20개 역사 및 열차 내부에 배치해 도시철도 안전 및 친절서비스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 6일 동구·서구·광산시니어클럽과 함께 '메트로 실버도우미'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메트로 실버도우미는 오는 12월까지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도우미 역할과 도시철도 이용객에 대한 안내, 승강기 이용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메트로 실버도우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도시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 1호로 지정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3월 중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시 농업기술센터를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최근 도시지역에서 텃밭, 옥상정원에 농작물·화초재배, 곤충 사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하는 국가전문자격 교육기관이다. 도시농업은 도시 내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채소 등을 직접 기르는 것을 지칭하며,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에서 기사사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를 소지하고 도시농업 육성법에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전문교육과정(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배치되거나 농업과 농촌 가치를 도시민에게 교육·홍보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613-5316)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전기연구원 지역에너지기업 지원 잇단 행사

13~15일 광주분원 미디어데이 14일 기술이전 사업설명회

로 마련된 이번 '미디어데이' 행사는 광주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전력변환연구센터와 분산전력시스템센터, 시험분야의 현황, 성과, 계획 등, KERI 보유기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또 한국전기연구원이 광주지역 전기 및 에너지 분야의 지역 산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14일 열리는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이전 사업설명회'에서는 광주지역 에너지분야 및 관심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

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유기술을 이전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와 선진 기술을 설명한다.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에너지관리 기술', '스마트 변전소 끊기지 않는 고신뢰 통신네트워크 기술', '전기자동차 충전 통신기술', 'HILS 기반 GW급 MMC HVDC 제어플랫폼', '3상 6.6kV급 반도체 변압기용 전력변환 기술', '전압형 MMC HVDC 서브모듈 평가용 시뮬레이터' 등 기술도 소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 1회용품 안쓰기 범시민 캠페인으로

광주시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에 들어간다. 7일 시에 따르면 1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마련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계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내 종이컵, 접시 사용 억제 ▲우천 시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털이, 우산꽃이 사용하기 ▲홍보를 제작 시 친환경제품 사용 ▲1회용품 사용억제 교육 ▲행사 포스터 제작 시 홍보지면 운영 등 자원순환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민과 환경단체로 자원순환 시민실천단을 구성해 '1회용품 바이

(buy)바이(bye) 캠페인'을 펼치고, SNS를 통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어린이, 주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형마트 등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장소에 '공유 장바구니 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재활용 실천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친환경을 넘은 '필(必)환경' 시대"라며 "인기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석면 슬레이트 처리·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광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8억59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2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0동 등 260동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부속건물이며 독립된 상가, 축사, 창고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되며, 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 선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6건 국비 45억여원 확보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19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6건 등이 선정돼 국비 45억15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에 최초로 들어서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14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남구 월산근린공원 내에 2021년까지 건립된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900㎡ 규모로 건립되는 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등 수준운동시설을 포함한 수영장 복합형 모델인 수영장 강화 유형 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부

문과 안전 관련 긴급부문 등 2개로 나눠 진행된다. 부문별로는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영주골프센터 개보수 ▲광주도시공사 실내수영장 개보수 등 노후부문 3개, ▲동구문화센터 체육관 개보수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월드컵경기장 안전보강 개보수 등 안전 관련 긴급부문 3개 등 총 6곳에 13억47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김경호 시 체육진흥과장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광주에 최초로 들어서면서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구축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흙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